

현장의정활동관리카드

전문위원	결 재
강영	

문건-2090(2016.8.9)

관리번호	연번 문화건설안전위원회	방문 일시	2016.08.08	장소	인후3동 버스정류장
참여인원	8명		참석의원 직원	최은희 부위원장 변혜진 등 7명	
사업명	현장의정활동			총사업비	
소관	국장 김천환 (T. 280-3600)		물류교통과장 정토진 (T. 280-3330)		
현장의정 활동배경	저상버스 정류장 현장점검 등				
조치결과	개선 여부		개선시기		개선유보
개선유보 미개선 사유					

현장 의정활동 결과

○ 주요현황

- 일 시 : 2016년 8월 8일(월) 10시 ~ 12시
- 장 소 : 전주시 덕진구 아중제일2차아파트 앞 버스정류장
(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, 전주농협기린동지점 맞은편 정류장)
- 참석자 : 약 8명 정도
 - ▶ 도 의 회 : 최은희 도의원 외 3인
 - ▶ 도 청 : 물류교통과장 외 2인
 - ▶ 시민대표 :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팀장

○ 활동결과

- 저상버스정류장 개선사업 현장을 찾아 중증장애인이면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니버설디자인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승권씨가 저상버스를 직접 타보는 등 개선실태를 검증함
- 현장점검에서 최은희의원은 아스팔트 경사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단순히 보기 좋게 고쳤다고 다 끝났다고 여기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함
- 또한, 장애인·비장애인의 구분과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설계하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인데, 아직까지 전라북도 행정은 장애인을 별도의 대상으로 구분 짓고 있는 것 같으며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모차, 노약자 등 모두를 위한 정류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개년 사업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요청함
- 작년 8월 ‘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’를 제정하고, 곧바로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저상버스 제작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보장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

○현장사진



현장사진



현장사진